전법 일기

신도에 맞춘 관음기도 10년 1명이 28명으로 늘어났다

10여년 전 어느 날 한 분의 거사님이 찾아오셨다. 자기가 관음기도를 하는데, 관음도량인 보리암 등 여러 사찰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거사님은 절을 하면서 관음정근 기도를 하는데, 정근하시는 스님의 정근기도 속도가 어느 곳은 너무 빠르고, 어느 곳은 너무 느려서 힘들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스님들께 " 정근 속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거사님이 상이 높아서 그렇다" 며 자신의 정근 속도에 맞추어서 정근기도를 하라고 호통치시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래서 재적사찰 주지인 필자에게 와서 관음기도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없던 기도를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고 거사님의 속도에 맞게 정근기도를 하는 것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거사님의 신심과 열정이 너무 지극하게 느껴져서 거절하지 못하고 관음정근 기도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거사님과 둘이서 거사님이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관음정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둘이서 시작한 소소한 기도가 이제는 회원수가 28명이나 되는 거룩하고 장엄한 관음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시간이 흘러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때 한 분 거사님의 원력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며, 일주일에 한번 내 마음의 삼독심을 비우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로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보살은 원력으로 오시고 원력으로 사신다고 한다. 비록 우리들 범부 중생들은 욕망으로 사바세계에 몸을 받고 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원력의 보살로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불자의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관음기도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를 시작 하시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로 회향하고,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과 생필품 자비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관음기도의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일이고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살아있는 생명이건 어떤 것이든 동물이건 식물이건 남김없이 기다랗거나 커다란 것이든 중간이건 짧건 미세하건 거칠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생겨난 것이건 생길 것이건 모든 뭇 삶은 행복하여 지이다."

오늘 하루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가득하시기를 발원하며.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흰 고래와 '佛性'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아직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제주도의 바다를 찾았다. 야외 카페에 앉아 바라보는 바다는 아름답고 평온했다. 갑자기 종소리가 댕댕 울리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닷가로 달려 나갔다. 고래가 흐릿하게 바다 위로 불쑥 불쑥 머리를 내밀었다. 나도 모르게 바다로 뛰었다.

한 무리 고래 떼가 바다 수면을 가르며 앞선 고래들을 따라 헤엄쳐 갔다. 그들 중 몇 마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에 환호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느라 분주했다. 나로부터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서 아기 고래 두 마리가 번쩍 머리를 들더니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고래들의 모습은 경쾌하고 발랄했다.

허먼 멜빌(1819~1891)의 〈모비딕〉을 읽으면, 포경선 선장은 자신의 한쪽 다리를 물었던 고래를 리바이던(사악한 짐승)으로 여겨 온 바다를 헤매며 고래의 등에 작살과 창을 던진다. 태평양 최북단에서 잡힌 고래의 몸에서는 그린란드 바다에서 박힌 작살이 발견되곤 했다. 고래가 잡혔을 때 그 몸에는 작살 19개가 꽂혀 있기도 했다. 어떻든 예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다니는 고래가 이제는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고래가 멸종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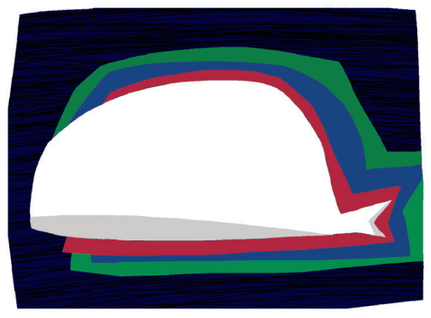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물속을 빠르게 헤엄치며 순간 솟구치는 고래의 머리만 언뜻 볼 뿐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하기야 향유고래를 정면에서 응시한다 해도 얼굴은 볼 수 없다고 한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는, 얼굴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이마가 넓은 하늘처럼 펼쳐있는데, 그 이마에서는 본래부터 갖추어진 신적 위엄이 느껴진다고 한다.

모세가 유대교의 신에게 얼굴을 보여 달라 하자 신은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래에게는 아예 얼굴이 없다는 것이다. 신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뜻일까.

멜빌은 모비딕의 특징이 흰색에 있다고 한다. 내 눈에도 내리쬐는 햇빛으로 반짝거리는 윤슬 속을 헤엄치는 고래들이 흰색으로 보였다.

우리는 옛 조상들이 즐겨 입었던 흰옷에서 애잔한 순결함을 떠올린다. 세속의 오탁에서 벗어난 신성함과 권능도 떠올린다. 신화에서 신들은 흰옷을 걸치고, 성경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은 흰옷을 입는다. 하지만 흰색이 갖는 숭고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공포도 불러일으킨다. 시신에 감도는 차가운 대리석과 같은 섬뜩함이 떠오르고, 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한다. 배내옷과 수의가 흰색인 것을 통하여 그 색이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어져 있는 색이란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흰색은 무궁한 의미를 담고 있다.

흰빛은 우리의 망막에서 원추세포가 감지하는 빨강, 파랑, 초록의 가시광선들이 합쳐지면 볼 수 있다. 하지만 흰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흰빛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흰색을 배제시켜야만 모든 사물이 드러난다. 흰색은 무(無)색이지만 색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텅 빔(無)에서 만물(有)이 나오고, 만물은 무(無)로 돌아간다. 흰빛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말 못 할 공허.

나는 윤슬로 반짝거리는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흰 고래를 바라보며 삼라만상에 가득 차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성(佛性)'을 떠올린다. 〈작가〉

기자칼럼

천재지변에 불교유산 관리 만전을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일부 지역 사찰들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6월 12일까지 국가지정유산 3건, 시도지정유산 3건 등 6건의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불교문화유산에 피해가 집중됐다. 부안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시도유형)은 불두 좌측 장식이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보물)에서 전면 앙토가 탈락됐다.

지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은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녹색연합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산사태의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는 440건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발생한 피해가 30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목조문화유산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흰개미의 역습은 어떤가. 이 역시 한반도 전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흰개미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주요한 이유다. 실제 목조문화유산에 피해를 주는 흰개미 피해가 최근 10년간 23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기후변화 피해 데이터 정보체계·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의 과학적 분석·예측·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불교계에서는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화유산은 소실되면 다시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